**아오시마 신사**

역사

예로부터 신성한 섬으로 여겨졌던 아오시마섬은 신이 머무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아오시마섬에 처음으로 종교 시설이 지어진 것은 헤이안 시대(794-1185)였습니다. 이후 에도 시대(1603-1867)에 들어서면서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 지역)의 다이묘(영주)가 신체를 모시는 건물인 샤덴의 유지 및 확장을 담당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1737년에는 당시 신관이나 고관 외에는 출입할 수 없었던 아오시마섬의 신성한 물가의 출입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신들

아오시마 신사에는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 시오쓰치 세 명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의 사랑 이야기는 일본 신화와 역사를 기록한 8세기의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냥의 명인이었던 야마사치비코와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는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조부모입니다. 신화 속 시오쓰치는 훗날 부부의 연을 맺는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가 만나는 계기로 등장합니다.

축제

아오시마 신사에서는 연중 내내 축제가 개최됩니다. 봄 축제(시마비라키 축제), 여름 축제, 가을 예대제, 겨울 축제가 치러지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여름 축제는 역병, 병충해, 풍수해와 같은 모든 재앙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음력 6월 17일과 18일(양력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치러집니다. 미코시 가마(신을 태운 가마)를 올린 선박을 선두에 배치한 선단이 섬을 한 바퀴 항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에는 젊고 건강한 참가자들이 미코시 가마를 짊어지고 육지에 올라옵니다.

겨울 축제는 1월 둘째 주 월요일에 치러지며 야마사치비코의 신화 중에서 일부 장면을 재현합니다. 도요타마히메의 아버지인 해신의 궁전에서 만난 도요타마히메와 야마사치비코는 3년 동안 궁전에서 생활하지만, 결국 야마사치비코는 상어의 등에 올라 고향인 육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지에 도착한 야마사치비코는 환희에 찬 군중의 환대를 받는데, 이때 마중나왔던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옷을 입을 새도 없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둘러 뛰쳐나왔다는 전설을 본떠 샅바와 비슷한 훈도시 차림의 참가자들이 차가운 파도 속을 뛰어들어 신을 향한 인사의 의미로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섬

아오시마섬은 둘레 약 1.5km의 섬으로 대부분이 정글 같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섬에는 226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그중 27종은 열대 및 아열대 식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야자수인 비로자야는 예로부터 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오시마섬은 기묘한 모양의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거대한 빨래판으로 보인다고 하여 ‘도깨비의 빨래판’으로 불립니다. 수백만 년 전, 지각 변동과 육지 융기로 인해 해저에서 올라온 암석은 파도 침식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이랑 모양으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